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The School Experience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여지영*, 채선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Ji-Young Yeo(shine031031@snu.ac.kr)*, Sun-Mi Chae(schae@snu.ac.kr)**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실질적 자유학기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의도적 표집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행평가에서 고군분투하기', '시험에 대한 부담감', '진로체험의 아쉬움', '깊이 있는 우정', '차별과 존중의 양면성', '초등과 중등 사이에서 휴식과 적응의 기회', '생각 없이 흘러간 찰나같은 아쉬움', '자유로움과 압박의 공존',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공간', '생색내기식 리허설에 끌려다님'. 연구결과,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에 대한 양가감정과 함께, 특히 친구관계에서의 특별한 우정에 대한 경험이 가장 우세하게 떠올랐다. 자유학기제 경험의 전반에서 협력위주의 우정이 지배적 범주로 떠오른 것은 경쟁위주의 현 학교 현실에 대한 긍정적 대안으로서 자유학기제의 성공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경험의 의미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자유학기제 | 중학생 | 학교생활경험 | 질적 연구 |

Abstract

Free Learning Semester, the new education policy of middle schools in Korea, will be completely implemented in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chool experience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rough qualitative approach.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8 middle-school students from the purposive sampl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0 essential themes were identified. Themes were as follows: 'Struggling from the performance evaluation with biting the bullet', 'Great pressure on final examination that is only once a year', 'Inconvenience of career education experience', 'Higher level of friendship', 'Double face of discrimination and respect', 'Chance to adaptation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school', 'Regret about fleeting time without thought', 'Ambivalence of freedom and suppression', 'Warm place with peer', 'Being pushed rehearsal wearing other's cloth'. In conclusion, the nature of lived experience of middle-school student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is based on ambivalence of various aspects, but is predominant in 'higher level of friendship'. It suggested that the Free Learning Semester can be a positive alternative to existing education system that made students to compete each other.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discuss the future policy direction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hich explored the nature of lived experience related to the Free Learning Semester.

■ keyword : | Free Learning Semester | Middle-school Students | School Experience | Qualitative Study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공교육체제를 완성한 나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주입식, 암기식,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이 부족하며 청소년 행복지수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1].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TIMSS)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최상위권이었으나 반대로 흥미도와 자신감은 하위권으로 나타난 바 있다[2][3]. 이렇듯 낮은 학업흥미도와 자신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미미한 수준 등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4]. 특히,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계속해서 우수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적 관심 및 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들의 학교 및 교과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3].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또래관계를 맺어주는 사회적 장인 동시에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가진 목적 집단이다[5].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업에 대한 부담과 입시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6]. 더욱이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지적 탐구 및 사회적 발달의 시기이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서투름, 진로 준비의 시작 등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변화의 시기이다[7]. 기존 교육제도 하에서 중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지나치게 학습능력만을 강조하는 입시 및 성취 위주의 교육현실은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학교생활에서의 흥미와 의욕을 잃게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8].

이러한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교육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교육 정

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9].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동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형태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시범운동을 거쳐 2016년도에는 전국 중학교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10].

이렇게 자유학기제의 전면 도입과 운영을 앞둔 시점에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자유학기제의 의미, 정책적 접근, 교육과정과 평가체계, 운영 및 교육과정 실태 [10-16]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작 자유학기제의 주체가 되는 중학생들의 실제 자유학기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반영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현행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실천과제가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 경험의 주체가 되는 중학생들의 생활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과 구분되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관점을 포착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이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질문

본 연구질문은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은 어떠한가?”이며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 하에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을 대신하여 진로교육과 토론, 실습 및 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이다[4]. 즉, 자유학기에 집중적 진로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초등(진로인식)-중등(진로탐색)-고등(진로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교육의 연속선 상에서 지원하는 정책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로개발 역량과 함께 개인의 삶에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으로서 융합되어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1].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구체적 모델 정립 과정을 거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2016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학기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하루 일과는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사회, 과학, 도덕, 기술, 가정 등의 기본교과 수업으로 편성한 '공통과정'(19-22시간)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진로탐색활동,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중심으로 중점화한 '자율과정'(12-15시간)을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9]. 자유학기제 중점모형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오후에 이루어지는 '자율과정'의 주요활동에 따라 '진로탐색 중점모형', '학생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예술·체육 중점모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교수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한다[10].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출현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반성과 학습에 대한 학생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선진국들이 청소년에게 새로운 환경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역량 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자각한 정책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12].

2. 선행 연구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관련 연구는 주로 자유학기제의 의미 및 전망을 포함한 정책적 접근[11-14], 국외의 관련 정책 분석 연구[18][19],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운영과 관련한 탐색적 연구[4][10][15][16]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시범 운영과 관련한 교육과정 실태 연구[10][16]가 각 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연구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운영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전체 집단의 찬성(60.3%)이 반대(9.6%)의견에 비해 우세하였으며 특히 학생 집단의 찬성의견이 62.8%로 나타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 연구자 집단은 짧은 준비과정 속에서 진행된 자유학기제 사전 준비나 학교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았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초 연구, 이해 및 관련 인프라 부족에 대해 우려하였다[4]. 이와 비교하여, 현행 자유학기제의 모델이 되는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경우에는 40년 가량의 긴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학생이 늘어나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정책을 비롯하여 국외의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들은 학생중심의 선택적 프로그램,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 성찰과 성숙의 기회 및 다양한 직업 선택 기회 제공 등이 특징이며, 특히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즐겁게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19].

국내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대상의 단기 운영 결과에서,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측면은 ‘내면의 성찰과 새로운 가능성 탐색’, ‘새롭게 관계 맺기’, ‘교사 주도의 정책 실행 경험’, ‘진로의식 증진을 통한 학습동기 생성’으로 나타났다[15]. 그러나 이는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이며, 향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실질적 주체인 학생들의 시각에서 이들의 자유학기제 학교생활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탐색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를 탐색하고 심층적 자료를 수집한다[20].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질적 연구 유형으로, 본 연구특성상 ‘자유학기제’라는 특정 상황을 경험하는 사례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에 적합하다[21].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1학년)과 공간(일 시범학교)에 의한 경계를 가진 명확한 체계(사례)를 가지고 관심주제를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참여자를 연구자가 선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 참여자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인 서울시 K 중학교 2학년생이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진로탐색 중점 모형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부모와 학생 모두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총 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었다[표 1].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종교	성적	취미	장래희망	반
1	15	남	천주교	상	자전거	치과의사	A
2	15	남	기독교	상	축구	물리학자	B
3	15	남	기독교	중	게임	컴퓨터	B
4	15	남	없음	중	게임	지리학자	C
5	15	남	기독교	중	피아노	작곡가	D
6	15	여	천주교	상	음악감상	언론인	D
7	15	여	없음	중	영화감상	변호사	E
8	15	여	없음	상	치어리더	의사	C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유학기제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심층 면담을 통하여 2015년 3월 20일부터 2015년 6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부모와 학생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화된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참여자에 따라 2~4회까지 시행하였으며 개인별로 총 75분에서 12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은 대한질적연구학회 평생회원으로서 관련 워크숍 및 질적자료분석론 수업에 한 학기동안 참여하고 심리상담지도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다. 연구질문은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은 어떠한가”이며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작년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루 일과를 쭉 이야기해 주세요, ‘자유학기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세요’, ‘학교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학교수업은 어떠했나요’,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어떤 것인가요’, ‘학교에 언제 가기가 싫었나요’,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는 어떠했나요’, ‘자유학기제를 다시 한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자유학기제를 돌아볼 때, 학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면담내용은 녹음되었고 면담 직후 필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필사작업에서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나 몸짓, 표정 등 면담 중 관찰된 내용을 필드노트에 기록하여 참여자의 체험이 생성한 본질에 가깝도록 작성하였고, 면담 후 반영노트를 활용하여 추가질문을

구성하고 맥락적 느낌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사 자료는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고 분석을 진행하였고 최종분석단계에서 참여자에게 다시 면담내용을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확인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로써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부모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가능성에 대한 동의와 학생에 대한 접촉 허가를 받았다.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에게 동일 내용을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추후 안내문을 받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서면동의서와 부모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고 녹취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종료 후에는 폐기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5. 자료 분석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드러내는 주요 주제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Miles & Huberman[22]의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사례분석에 적절한 방법으로, 텍스트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매트릭스나 자료를 배열하고 압축시키고 이를 다시 읽고 의미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에 익숙해지고자 하였고 자유학기제 학교생활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나 구절들을 확인하고 이를 추출하여 코드화하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후 자료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자료에서 추출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절을 토대로 개별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 매트릭스를 일차로 구성하였다[23].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표이다. 질적 자료를 분석 매트릭스로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은 단순히 직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보다 자료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다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돕는다[17]. 초기 매트릭스 열에는 사례연구 특성인 '시간성', '공간성' 및 '맥락성' 이외에 문헌고찰과 원자료의 코딩을 토대로 학교생활에서의 '관계성' 영역이 추가되었다. 행에는 학교생활의 주요 경험들을 반영한 '활동(수행평가, 정규수업,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여가시간)'들을 배열하였다. 이를 구조적 참조틀로 하여 매트릭스로 자료를 구성한 후에는 원자료로 돌아가 자료를 재분석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진술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추후 8명의 개별 매트릭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s) 과정을 거치면서 매트릭스에서 포화가 많이 되는 셀(cell)들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면서 주제가 떠올랐다. 매트릭스로부터 떠오르는 주제들을 통합하고 다시 기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관심 현상에 대한 심층적 기술로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의 전 과정동안 동료피드백과 연구자간 확인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확인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6. 연구 결과의 질 확보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성(confirmability)의 기준을 고려하였다[24].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유학기제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영노트를 기록하고 가급적 면담 종료 직후 연구자가 직접 필사함으로써 자료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분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 등 동료 피드백을 받았고 공동연구자간 분석회의와 연구참여자확인(member check) 과정을 거치는 등 삼각검증(triangulation)이 이루어졌다. 적합성 측면에서는 연구결과 일반화와 관련하여 참여자 선정기준을 세우고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수집과 분석을 계속하였다.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목적

에서 진로 탐색 위주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장래 희망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성별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감사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료수집과 해석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연구문제 제기에서부터 참여자 선정, 연구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술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도출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의미있는 진술들의 예를 본문에 제시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달성 가능하다. 연구 전반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편견들을 고려하면서, 자료수집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견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going native'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현장노트, 반영노트 기록을 통해 동료들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총 8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어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영역, 10개 주제가 도출되었다[표 2].

표 2.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과 관련된 주제

영역	주제
체험된 활동	울며 겨자먹기로 수행평가에서 고군분투하기 시험에 대한 부담감 진로체험의 아쉬움
관계성	깊이 있는 우정 차별과 존중의 양면성
시간성	초등과 중등 사이에서 휴식과 적응의 기회 생각 없이 흘러간 잘나 같은 아쉬움
공간성	자유로움과 압박의 공존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공간
맥락성	생색내기식 리하설에 끌려다님

1. 체험된 활동 영역

1.1 울며 겨자먹기로 수행평가에서 고군분투하기

참여자들은 무수한 수행평가 일정 속에서, 혼자 또는 조별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짜증, 분노, 억울함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였다. 특히 수행평가가 조별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조에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나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나 동일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평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억울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수행평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조별평가가 나쁘게 되어 본인의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행평가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엔 제가 거의 했는데 나중엔 뻑쳐서 안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하는 높이나 안하는 높이나 똑같이 ppt에 이름 올려야 되잖아요 수행평가. 안하는 새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결국 해야 되요.(참여자 1; 8쪽)

자유학기제에는 수행평가로 시험성적을 대체하다보니 수행평가가 너무 많았다.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겹칠 때는 하루 종일, 매 시간 수행평가가 있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는 수행평가는 시지프스의 신화와 닮아있다.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산꼭대기로 돌을 올리는 시지프스처럼, 학생들은 수행평가의 돌을 굴러 올리며 고군분투하였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보다는 눈앞의 돌을 치우기 위해, 오늘 좋은 성적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수행평가가 폭탄이었던 날이 있어요 하루에 6가지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중략)... 준비시간을 하루를 썼어요 저는 그날 학원이 10시 반에 끝나서 저녁도 안먹고 수행평가를 준비했죠 근데 수행이 그것만 있었어요? (중략)... 진이 빠지긴요, 아직 4교시밖에 안했는데요 (중략)... 완전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다가 아직도 이게 끝이 아니라니...(참여자 2; 4쪽)

수행평가를 여러 개 하다 보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구... 일단 치워버려야 하는 장애물? 넘어가야 하는 산. 뭐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7; 3쪽)

1.2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연구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시험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시험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부담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이 없어서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지만 1학년과 2학년 간 시험 공백기가 있다 보니, 시험이 다시 생기는 2학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컸다. 또한 자유학기제 직전에 본 시험이 해당 1년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점에서도 시험부담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은 시험을 없앤 교육정책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분노로 연결되기도 하였고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의 공백기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일반 학교에 비해 시험적용 기회가 부족하여 2학년이 된 후에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시험에 대한 감이 떨어져서 시험 노하우도 없고.. 응.. 그러니까 시험이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됐던 거 같아요. 노는 것도 좋았지만 그 댓가가 너무 커서 안 좋았어요. (참여자 3; 5쪽)

시험 첫째 날에 학교를 가기 죽기보다 싫었어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공부가 더 안됐어요 아침 먹은 거 다 체해서 시험보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악몽이에요. (참여자 1; 5쪽)

1.3 진로체험의 아쉬움

연구참여자들은 미래의 꿈과 관련된 진로체험에 있어서 학교 측의 사전준비가 미흡했으며 체험활동이 일부 즐겁고 재미있긴 했으나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흥미가 없는 곳으로 진로체험을 가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 물질적 손해라고 아쉬워하였다.

여러 프로젝트라든가 진로탐방은 저희한테 좋은 추억이 되고 경험을 쌓게 해주긴 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단점도 있구요. 응 또 사실은 별로 도움도 안되고 관심도 안가는 직업에 대한 진로탐방은 사실 좀 무의미했고, 딱 박물관으로 진로체험을 나간다는 건 말이 진로체험이지 시간 때우기에 가까웠어요. (참여자 2; 11쪽)

2. 관계성 영역

2.1 깊이 있는 우정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가장 우세하게 떠오른 주제는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친구들과 약간의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중학생으로서의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러한 어색함들이 빈번한 체험학습, 조별 수행평가 및 여가시간 등을 통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초등학교 때와는 '급(level)이 다르다'고 표현되는 '깊이 있는 우정'으로 변하였다. 친구들과의 '깊이 있는 우정'은 학년이 바뀌어서 반이 달라진 후에도 지속될 정도로 친밀하고 특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하고는 뭐 최고였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급이 달라요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체험학습도 엄청 나가고 수행평가도 많이 하고 저는 일학년 때 친구들과 우리끼리 아예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암튼 개네랑 너무 재밌는 추억이 많아요. (참여자 2; 10쪽)

2.2 교과로부터의 차별과 존중의 양면성

중학교는 담임 선생님 이외에 다양한 교과목 선생님들을 접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 아동으로 취급되던 것과 달리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존중받기도 하고 차별받기도 하면서 즐거움, 기쁨, 짜증, 분노,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다. 또한 자유학기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교과수업 이외의 시간을 공유할 시간이 많다보니 나이가 젊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선생님과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사제시간의 친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반면 나이 많고 권위적인 선생님은 체험이나 활동에 관심이 적고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향도 있어 초등학교 때보다 더 실망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교과로부터 받는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적으로 나타났고 일부 참여자들은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좋았어요, 저희 쌤이 진.. 짜 좋으셨거든요 정말 쌤이

이해도 잘 해주시고 썩하고 밖에서 공부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중략)...사건 같은 거 터지고 이래도 저희 쪽에서 많이 생각해주시고 (참여자 4; 5쪽)

선생님들도 시험 한 번 본 걸로 우리 차별해요 우리 담임쌤 같은 경우... 공부 잘 하는 여자애들은 예뻐하고 한 번 찍힌 애들은 1년 동안 영원히 고통이예요 (참여자 1; 7쪽)

3. 시간성 영역

3.1 생각 없이 흘러간 찰나 같은 아쉬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하의 중학교 생활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나 계획 없이 중학교 생활을 맞이해서 1학년을 생각 없이 흘러 보낸 것을 아쉬워했다. 여유시간이 많아서 친구들과 많이 놀 수 있었지만 공부를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자유학기제가 다시 된다면 '제대로 공부를 여유있게 해보고 싶다', '수행평가준비를 정신차려서 하고 자유학기제를 잘 이용하고 싶다'는 진술들이 두드러졌다. 어려서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보고 듣고, 학원이 놀이터보다 더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이 세대의 중학생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생각 없이 흘러 보낸 시간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과 아쉬움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한번 더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대도 별로 없었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중략)...아쉬운 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참여자 8; 13쪽)

3.2 초등과 중등 사이에서 휴식과 적응의 기회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기간이 초등과 중등 사이에서 잘 쉬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표현했다. 기존 교육과정 하에서는 4년의 정규고사와 학업부담으로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 편하게 여가를 보내고 편히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학

기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져 새로운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3학년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서 힘든데, 2,3학년을 준비하기 전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되어서 2학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8쪽)

4. 공간성 영역

4.1 자유로움과 압박의 공존

연구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에서 자유로움과 압박이 공존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중적인 이 느낌은, 교과과정 상 신체활동시간이 증가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표현과 시험과 수행평가로 압박받는 악몽 같은 공간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학교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곳이지만 동시에 학업에 대한 압박과 선생님들의 압박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공간이다.

보라색은 이색 저색이 좀 합쳐진 묘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것저것이 합쳐져 있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어서 즐거운 곳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는 부담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배우고 싶지는 않은데 선택의 여지가 제한됐었죠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참여자 2; 12쪽)

색깔로 치면 회색? 검은 밝은데 안은 어두운 검정색 같은? 뭔가 재밌는 것 같지만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고 뭔가 팍 풀어지지 않는.. 선생님들도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경 안쓰고, 자유롭게 수업하는 것 같지만 또 막상 그렇지 않고 결과 속이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참여자 1; 12쪽)

4.2 친구들과 함께 하는 따뜻함

참여자들의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에서 우세한 경험은 친구들과의 추억에 대한 따뜻함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 학교는 조금 더 따뜻한 장소로 경험되고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발달단계상, 동성의 친구와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도 학교하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한 쪽을 고려하면 따뜻해요. 내가 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잖아요. 집에서 잠자는 시간 아니면 정말 하루 중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을 걸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2; 13쪽)

5. 맥락성

5.1 생색내기식 리허설에 끌려다님

자유학기제라는 새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자유학기제를 우리 사회의 교육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꿈과 끼를 찾아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한계를 꼬집었고, 장기적 대안 없이 한 학기만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혼란을 표현하였다. 또한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시범 운영된 자유학기제 하에서, 자신들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생색내기식 리허설에 끌려 다니는 모습으로 비유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드러냈다.

보란 듯이, 그냥 척하는, 뭐 그런 거예요. 니넨 싫던지 말던지 우린 다양하게 체험 시켜줬다. 뭐 그런 거?? 여 거기저기 끌려다니는 게 좀 시간 아깝긴 했는데 (참여자 2; 12쪽)

다른 잘 사는 나라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돈 많이 벌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공부를 중요시해왔는데 갑자기 막 시험을 없애버린다고 하고 그것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자유학기제하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못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예체능 하는 애들, 성적 상관없는 애들이나 자유학기제 하라고 하지. 진로 탐색해놓고 어찌라지요 (참여자 1; 6쪽)

저희가 시범학교 뭐 그런 거. 선생님들도 어색했던 거 같고 평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선생님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더 애매하고 점수에도 불만이 생기고.. 우리가 마루타 아니에요? (참여자 6; 3쪽)

V. 논의 및 결론

기존 교육정책의 대안으로써 제기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학교생활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하여 재구성한 결과, 체험된 활동, 관계성, 시간성, 공간성 및 맥락성 영역에서 10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행평가에서 고군분투하기, 시험에 대한 부담감, 진로체험에 대한 아쉬움, 깊이 있는 우정, 차별과 존중의 양면성, 초등과 중등 사이에서 휴식과 적응의 기회, 생각 없이 흘러간 찰나 같은 아쉬움, 자유로움과 압박의 공존,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공간, 생색내기식 리허설에 끌려다님' 이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체험된 활동 이외에 학교생활에서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 및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 속에서 가장 우세한 것은,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경험 중 친구들과의 '깊이 있는 우정'과 '초등과 중등사이에서 휴식과 적응의 기회'라는 측면은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 이외에 자유학기제가 주는 또 다른 성과들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중학생들은 다양하게 쏟아지는 수행평가의 홍수 속에서 열심히 대처해 나가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수행평가에 지쳐간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하게 시도되는 현장체험, 진로활동들을 경험하면서 '말이 통하는',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일한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새로운 우정이 싹튼다. 학원 시간에 쫓기고 학업 부담에 눌린 중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학교는 수행평가 부담과 시험의 악몽만 아니라면 한바탕

즐길 수 있는 친구들과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아동기 때의 즉흥적 감정과 놀이를 통해 결합되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좀 더 친밀한 감정을 공유하는 동료관계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수행평가의 괴로움과 짜증을 함께 토로하면서,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이들에게는 “급이 다른 우정”으로 표현되는, 한결음 더 확장된 의미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발달단계상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자아의 발견으로 자기 인식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부모의 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개인으로 인정해주시기를 바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관계가 급격하게 중요하게 된다[25]. 그러나 현행 교육제도하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생활하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또래와의 협력과 조화보다는 학교 폭력, 왕따 현상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6]. 현행 교육제도 하의 중학생의 학교생활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27]에서 중학생의 삶이란 ‘혼자’ 해야 하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과정’이라고 제시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자유학기제 하의 중학생들이 학업부담을 여전히 경험하긴 하지만 ‘혼자’ 발버둥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학교생활경험을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또래집단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의도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협력과 배려,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청소년 핵심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적으로 발달시킬 가치가 있다. 대학에서 액션러닝(action learning)등 학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28] 향후 자유학기제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핵심역량을 함께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1학년 시기에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참여자들의 중학생 생활 적응을 효과적

으로 돕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중학생이 된다는 막연한 부담으로 1학년 생활을 시작했지만 과거보다 한결 여유로워진 학교생활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했다.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7][29]을 고려할 때,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이행(transition)을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측면은 자유학기제의 새로운 역할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의 부정적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에서 친구관계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수행평가의 어려움’과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표현된 학업부담이었다. ‘고군분투’라는 표현처럼, 다양한 교과목의 수행평가를 치워내야 하는 하루가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힘들어 수행평가를 치르면서도, 시험보다는 그래도 수행평가가 낫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중학생의 학업 부담, 시험 압박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 여유시간에 시험이나 성적 걱정없이 선행학습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일 참여자의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다시 시행한다면, 참여자들은 좀 더 여유 있게 공부하고 싶다고 아쉬워했다. 중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지적되는 것은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었다[6][8].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이 자유학기제 하의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중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심도있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자들의 수행평가방식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고려할 때, 학생간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고 평가의 방식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30] 기존 평가 체계에 대한 적극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진로체험활동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일부 체험이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 만큼 향후 효율적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교과활동과 함께 학생들

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외 활동에서의 체험학습을 강화해오고 있기는 했으나 교육정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부족하여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31]. 다양한 적성을 고려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에서 진로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활동처로서 대학의 공간과 자원을 제공하며 자유학기제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15], 향후 자유학기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존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진정으로 학생 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는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선택형 체험중심의 세부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에 대한 양가감정 속에서도, 친구관계에서의 '깊이 있는 우정'에 가장 강조점을 둔 점, 아동기에서 변화와 성장의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 소수이긴 하였으나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진로결정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점 등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라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시범운영 단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과 관련된 실제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이들의 꿈과 끼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교육적 문제를 넘어서 정신건강과 사회적 안녕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자유학기제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안내해갈 수 있는 전향적 장기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 서울, 2013.
- [2] 한국교육평가원, *TIMSS 2011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특성*, 서울, 2013.
- [3] 한국교육평가원, *국가 및 국제 학업성취도 자료 연계를 통한 우리나라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성취특성 분석*, 2014.
- [4]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19권, 제2호, pp.33-68, 2013.
- [5] 한국청소년개발원,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서울, 2007.
- [6] 김정현, 김성벽, 정민경,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75권, pp.241-269, 2014.
- [7] 정승현, 심미영,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275-284, 2014.
- [8] 김대현, 김현주, "입학초기 중학생의 삶,"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4호, pp.1-24, 2003.
- [9]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서울, 2013.
- [10] 이재창, 홍후조, 김미진, 임재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수업과 교육활동의 특징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135-1161, 2014.
- [11] 김순주,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제7권, pp.62-66, 2013.
- [12]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이선영,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4.
- [13] 박균열, 주영효, 고영종,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32권, 제1호, pp.25-51, 2014.
- [14] 이병환, 임영희, 권민석, "교육공동체 의견 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 탐색,"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2호, pp.103-26, 2015.
- [15] 신철균, 박민정,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제1

호, pp.309-338, 2015.

[16] 이은영, 손주영, 김예슬, 조재순,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6권, 제3호, pp.69-89, 2014.

[17] R. K. Yin,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역자: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서울: 학지사, 2013.

[18] 김진숙, "아일랜드 Transition Year 교육과정 탐구," 교육과정연구, 제31권, 제4호, pp.165-193, 2013.

[19] 김나라, 최지원,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27권, 제3호, pp.199-223, 2014.

[20]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2013.

[21] R. E. Stak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5.

[22] M. B. Miles, A. M. Huberman, and J. Saldaña,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sourcebook*,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4.

[23] M. B. Miles, A. M. Huberman, and J. Saldaña,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4.

[24] 이명선, 최경숙, 손행미, 은영, *질적 연구를 통한 간호실무의 이해*, 서울: 군자출판사, 2005.

[25] 현의열, "중학생의 스트레스 원인별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적 성장환경에 관한 비교 분석," 상담심리연구, 제5권, 제1호, pp.78-110, 2003.

[26]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25-237, 2011.

[27] 전효경, *중학생의 학교생활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8] 김미례, "청소년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63-76, 2015.

[29] 김영희, 최보영, "대학생의 핵심역량 육성을 위

한 Action Learning에서의 경험과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477-491, 2013.

[3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제2판,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31] 천정웅, 김정주,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특성 비교연구-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6권, 제2호, pp.101-122, 1999.

저 자 소개

여 지 영(Ji-Young Yeo)

정회원



- 199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심리사회적 발달, 소통, 간호사-대상자 관계, 소아암 및 건강장애아동

채 선 미(Sun-Mi Chae)

정회원



- 1990년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5년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Department of Nursing(간호학석사,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 2001년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 현재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간호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관심분야> :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 비만예방, 학교기반 중재프로그램